

주중대사관 신청사 개관식 축하

안녕하십니까?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중대사관 신청사 개관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청사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원하게 넓어서 좋고 건물들이 현대적 감각을 갖고 있어서 좋은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소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중국 소나무인지, 한국 소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상이 우렁찹니다. 또 물소리가 시원해 아주 풍치 좋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탁월합니다.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하중 대사와 직원 여러분, 건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정치적·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와 유대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근대에 들어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중국은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해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호친선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 두 나라는 수교 14년 만에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관계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역 규모가 22배,

인적교류는 34배가 늘어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하루 1만 명 이상이 양국을 오고 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번 당일 방문도 양국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이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나와 후진타오 주석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당면과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신청사가 양국의 우의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굳건한 터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